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1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지방국세청

지역경제 회생 ‘한마음 질주’ 김광 청장 등 110명 출사표



광주지방국세청 임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임장기자 jrwi@kwangju.co.kr

“지금 난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난 기업에 세정지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에 출전하는 김광(54)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비롯한 임직원 110명의 출사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아차,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광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휴무, 감산 등으로 불황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광주지방국세청도 힘을 보태

는 결의다.

특히 김광 청장은 무릎이 좋지 않아 달리는데 무리가 있지만 지역민들과 함께 달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출전 결심을 했다.

김광 청장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수시조사 등 불가피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2010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자금 편의를 제공해 조급이거나 운전자금에 숨통을 틔울 생각이 다.

주말 등산·조깅 통해 체력다져

이같은 김광 청장의 확고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임직원들이 동참하면서 광주지방국세청 3·1절 전국마라톤 출전 사상 최대 인원인 110명이 나서게 됐다.

이들은 광주지방 국세청의 지역경제 살리기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하고 교감과 소통을 할 계획이다.

김광 청장은 평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맨손체조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과 조깅을 통해 체력을 다지고 있다.

김 청장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강해야 업무도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이번 대회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기원하며 완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귀씨 페이스메이커 자임

박병기(50)계장은 매일 아침 광주교육대 운동장에서 속보로 건강을 다지고 있어 순위 입상을 꿈꾸고 있다.

김안철(43·서광주 법인세과)씨는 주3회 정도 오전 5시30분에 금당산을 오르내리고 주말에는 등산과 마라톤, 수영등을 즐

기는 운동 마니아. 이번대회에는 5km에 출전하지만 내년에는 10km와 하프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대귀(34)씨는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직원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담당한다. 권정용(41)씨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져온 체력을 직원들에게 자랑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지훈련 중인 KIA타이거즈가 17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구장에서 ‘대학 강호’ 고려대와 연습경기를 펼치고 있다.

양현종·나지완 “투·타 감 잡았다”



KIA 日 전훈련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대학 강호’ 고려대와 연습경기서 합격점

몸 덜 풀린 ‘빅초이’ 최희섭 안타 신고 못해

KIA 타이거즈가 폐기 넘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과의 환관 승부를 펼쳤다.

KIA는 17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와의 연습경기에서 1회 집중타를 앞세워 11-4로 승리했다. 7회 최경환의 대타로 나온 차일묵은 두 번째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1회 선투타자 채종범의 볼넷을 시작으로 공격의 표문을 연 KIA는 유격수 실책에 이은 이현곤의 2루타로 1점을 먼저 뽑아냈다.

5번 나지완은 무사 1·2루의 기회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터트리며 2타점을 올리는 등 KIA는 1회에만 6점을

뽑아내며 프로의 매서운 맛을 보여줬다. 하지만 15안타 7볼넷으로 11점을 뽑는데 그쳤다.

지난 13, 14일 자체 청백전에 이어 다룬팀과의 연습경기는 이번 전지훈련 들어 처음.

선수들의 실전감각을 테스트해 본 이 경기에서 눈길을 끈 선수는 승리투수 양현종, 3타수 3안타로 홀로 3타점을 올린 외야수 나지완 그리고 2점 홈런을 장식한 포수 차일묵이었다.

KIA 좌완의 희망 양현종은 12타자를 상대해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을 내주며 호투했다. 삼진은 7개를 잡아냈고 직구 구속은 146km까지 기록했다.

양현종은 “볼 끝이 더 좋아졌다는 것

이 느껴져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투상에 주자가 있을 때 타자와 주자 모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속세로 남아 있다”고 경기내용을 평가했다.

나지완은 이틀 전 경기에 걸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그럼에도 좌익수로 선발출전해 거침없는 스윙으로 3루타, 단타, 2루타를 차례로 때려내며 괴력을 과시했다. 몸살기운이 있어 중간에 교체됐지만 사이클링 히트도 기록할 뻔했다.

포수 차일묵도 연일 맹타다. 지난 13일 자체 청백전에서 광정철에게 홈런을 뽑아냈던 차일묵은 이날도 좌월 2점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지난 3번의 연습경기 타율은 8타수 6안타로 무려 0.750, 2개의 홈런을 곁들여 5타점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빅 초이’ 최희섭은 3경기 연속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연습경기 3경기 기록은 7타수 무안타 삼진은 2개를 당했다. 컨디션에 이상이 없지만 좀처럼 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황 코치는 “아직 최희섭의 안타가 나오지는 않지만 점차 중심에 맞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선수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경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대학동문 선·후배 모처럼 웃음꽃

박철우 전 KIA 코치 아들 세혁군 포수마스크

■ 고려대 연습경기 뒷얘기

17일 KIA 타이거즈의 전지훈련지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구장은 모처럼 찾아온 손님들로 하루네 북적였다.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야구부를 태운 전세 버스가 경기장에 도착했다. 지난달 27일 일본 세부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고려대 학생들이 KIA 타이거즈와의 연습경기를 위해 3시간 여를 달려 미야자키를 찾은 것이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훈련 중인 KBO 소속의 심판들도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관람석에는 야구 사람이 남다른 일본의 야구팬 10여명도 자리를 잡으면서 경기장 곳곳에는 활기가 넘쳤다.

학생들이 3루 스탠드에 짐을 푸느라 분주한 사이 구장 내 사무실에서는 양승호 고려대 감독을 중심으로 한 ‘반상회’가 열렸다.

양승호 감독은 신일중·고, 고려대 그리고 LG 트윈스에서 사령탑을 맡은 야구계의 대표적인 마당발로 김중모 수석코치와는 해대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다.

김상훈, 김중국, 최희섭은 대학 동문이고, 나지완은 신일중·고의 까마득한 후배다. 여기에 KIA 윤기우 운영팀장은 학부형이 된다. 2009 학번으로 새로 고려대야구부 선수가 된 외야수 윤민섭이 윤기우 팀장의 아들이다.

박철우 전 KIA 코치도 고려대 인스트럭터로 동행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받는 사람들로 경기장에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야구 2세” 들은 경기장의 화제거리였다. 박철우 코치의 아들인 박세혁이 윤민섭과 함께 포수와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애타는 부경에도 불구하고 박세혁은 3연타석 삼진, 윤민섭은 4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먼길을 나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양승호 감독은 “대학교 야구팀이 프로 1군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며 “이번 경기를 통해 아이들이 프로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자신의 실력을 점검 하면서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고 경기 파트너로 나서준 KIA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wool@kwangju.co.kr